

한국타이어, 미국 항소심에서 승소

만기보장금리 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 관할권 결여사유 제거 청원

한국타이어는 Peninsula Asset Management 등이 제기한 만기보장 금리부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고등법원이 원심재판부의 관할권이 결여돼 있어 원심판결의 무효와 소송자체를 전면 각하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고 1월29일 공시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Peninsula Asset Management와 나머지 2명의 원고들은 2004년 한국타이어의 사채 발행과 관련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원심인 오하이오주 관할 북부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한국타이어는 “원고들이 앞으로도 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심판결 유지를 위해 관할권 결여 사유를 제거하는 청원을 제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30>